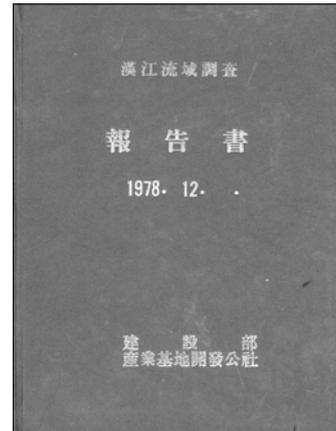


## 51 漢江流域調查報告書 한강유역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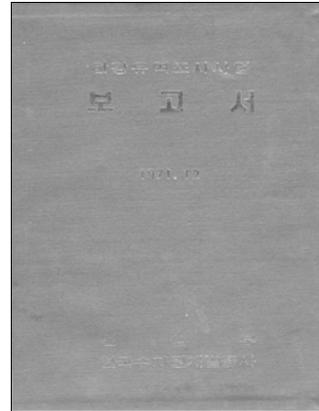
1978 / 건설부 / 455면 / G 05.20-13 권

**한** 강유역조사단은 1965년 1월 8일 USOM/K의 제의에 따라 건설부 동의하에 1965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인 기술자 2명이 내한하여 예비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라 AID 자금 175만 달러와 내자 2억 9,300만 원으로 1965년 10월 22일 대한민국과 미국 국제개발처 사이에 협정이 체결된 후 1966년 3월 15일 한국인 75명과 미국인 10명의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이 조사단은 1967년 11월 16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통합될 때까지 존속되었고 통합 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한강유역 합동조사단이 설치되기 이전의 한강유역에 대한 조사연혁은 다음과 같다.



- 6·25 이전 : 한강유역의 부분적 조사 시행 중 전쟁으로 중단
- 6·25 이후 : Smith Finchman & Gryties사에 의해 한강 포장 수력 조사
- 1960년 : Pabeco사 충주수력발전소 설계
- 1961년 이후 : 프랑스 Sofralec사 팔당 설계, 일본공영(工營) 소양강댐 설계, 미 Black & Veatch Co. 서울 상수도 조사 건설부 경인특정지역 조사
- 5·16 이후 : 물자원 개발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사업인 한강 및 낙동강유역에 대한 합동조사단 설치

이 합동조사단은 우리 수자원 개발에 있어 신기원을 수립했다. 그것은 첫째로 수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조사와 계획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둘째로 선진 기법 도입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만약 이 당시 한강과 낙동강유역조사단의 설치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하천행정이나 수자원개발수법은 일제의 구각을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낙동강유역조사단은 UNDP자금 279만 3,500달러와 내자 2억 246만 1천 원으로 1966년 10월에 발족하여 1974년 12월까지 존속했는데 사무실은 대구에 두었다. 이 두 조사단은 각각 『Reconnaissance Report Water Resources Study Han River Basin (Vol. 1-3), 1971』과 『UNDP/FAO LAND and Water Resources Planning in The Nak dong River Basin (Vol. 1-8), 1971』을 출간했다.

한강유역 합동조사단은 건설부 출신인 댐 전문가 김여택(金麗澤)이 담당했었다. 1968년 3월과 같은 해 7월에는 금강유역조사단과 영산강유역조사단이 설치되었으나 그 규모는 한강과 낙동강 조사단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사업은 일제에 의한 조선하천 조사사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었다.